

**지역 소식통**

**완주군,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완주군이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1일 군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안전 점검수리반이 상관면 마수대 마을을 방문해 안전점검과 취약 부분에 대한 수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반이 방문한 상관면 마수대 마을은 3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노인가구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시설 및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교체했으며, 화재 감지기와의 같은 기초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한편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에서는 위험 발생시 자구능력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의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생활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매년 4개 시군의 오지마을을 선정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의 안전점검과 수리를 실시하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공무원 정책서포터즈 토론회**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1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6·7급 공무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공무원 정책 서포터즈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제시의 현재를 공무원과 지역민들 스스로 객관적·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새만금시대에 맞는 김제비전 구상과 미래변화에 대응할 체계를 갖추기 위해 추진하는 '새만금중심도시 김제 미래플랜'에 대한 검토·보완 과정으로서, 새만금·농산업·지역경제·문화관광·교육복지·도시성장 등 6개 분야로 팀을 나눠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백구면, 하절기 방역 실시**

김제시 백구면(면장 최니호)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하절기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백구면은 하절기 방역 소독 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2일부터 10월 중순까지 90여일간 7시 이후 일몰시간에 면사무소 대형 연막기 1대와 40개마을 자율방역단의 방역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 연막기는 40개마을을 일주일 단위로 마을을 순회하게 되며 특히, 인구밀집지역, 가축사육장, 하수구 등을 집중 소독하게 되며 마을단위 자율방역단은 마을 응당이, 풀숲 등 해충 서식지를 우선 제거하여 방역활동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는 늦더위로 인한 모기·파리 등 해충에 대비하기 위하여 20여일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10월 중순까지 하절기 방역을 실시하게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혁신도시에 지역거점 조성**

**문화체육센터·청소년 문화의 집, 사람·문화·자연에 초점**

완주군이 이서 혁신도시에 조성될 '문화체육센터·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람과 문화 자연을 잇는 새로운 지역거점으로 조성한다.

1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1일 기본계획안 용역보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혁신도시와 원도심 주민을 이어주는 지역사회 소통의 장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총사업비 152억 원(국비 38억, 군비 114억)을 투입해 문화체육센터(2,700㎡)와 청소년 문화의집(300㎡)을 병동제와 연계해 사람과 문화 자연을 잇는 친환경 공간으로 개발한다.

또 지역민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시설을 배치하고, 편의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동선계획을 통해 일반인과 청소년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성도 극대화 한다. 지열, 태양광, 고단열, 고기밀 시스템 적용 등 에너지 건물 구현에 초점을 맞춘 설계계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저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설계제안공모를 실시해 지난 3월 설계업체를 선정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시설의 이용률과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설계 중 주민 중심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황철호 공영개발과장은 "조성 예정인 이서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청소년 문화의집이 혁신도시 내 부족한 정주여건을 개선함은 물론이고, 이주민과 원도심 주민을 이어주는 소통의 장으로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센터·청소년 문화의 집은 올해 11월 착공예정일로 복합건물로 조성될 예정이다. 문화체육센터에는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과 부대시설이 들어서며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북카페, 놀이존, 동아리 활동실 등을 설치한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이 전 직원 전복투어패스 체험을 실시한다.

**완주군, 전 직원 전복투어패스 체험 실시**

**6월 한 달간 전복투어패스 직접 사용**

완주군이 전 직원 전복투어패스 체험을 실시한다.

1일 완주군은 군 산하 전 직원 900여명이 6월 한 달간 전복투어패스를 직접 구입해 사용하는 현장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군청 문예회관에서 전라북도 민동규 박사를 강사로 초빙, 전복투어패스 사업취지와 패스카드 200%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 직원이 투어패스 체험을 함으로써 전복투어패스 사업취지 및 효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에는 삼례문화예술촌, 솔테마 박물관, 고산자연휴양림, 민경강수생생물체험과와관, 완주휴시네마, 이서 물고기마을 등 6개소의 전복투어패스 자유이용시설이 있다. 또 110개소의 특별활인가맹점에서는 식사와 체험

활동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전복투어패스 시행으로 지역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객 이용시설인 음식점,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에 대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점검하고 현장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직원 투어패스 체험과 함께 도내 지자체 공무원노동조합 장에 대한 전복투어패스 체험, 지역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기업체의 전복투어패스 홍보활동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농악으로 놀자!' 기획공연**

9월 20일부터 9월 21일 벽골제 문화마당에서

전통 농경문화 고장인 김제시(시장 이진식)의 김제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위원장 정희운)가 기획한 해외관광객 및 주한외국인과 함께 즐기는 농악기획공연 '농악으로 놀자!' 프로그램이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 9월에 김제 벽골제에서 펼쳐지게 된다.

금번 공모사업은 전국 쌀 생산량의 1/40을 생산하는 전통 도작 문화의 1번자인 김제시의 여건을 최대한 살리는 기획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농악이 농경문화에 차지하는 비중과 유네스코 등재 세계무형문화유산임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준비하는 사업으로 (재)전통공

연예술진흥재단의 공모사업에 담당하게 선정된 것이다. 올해 열리는 '농악으로 놀자! 농악기획공연'은 9월 20일부터 9월

21일 양일간 벽골제 문화마당에서 개최하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국가지정 6대 농악' (진주 삼천포, 평택, 이리, 강릉, 임실 필봉, 구례 잔수)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김제농악'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특히 이번 기획공연은 농경문화 대표 프로그램으로의 정례화 차원에서 진행되며, '해외관광객 및 주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대동놀이의 장'으로 특별 구성하여 전개되며, 외국인 관광객 모객을 위한 한국관광공사, 인바운드 여행사 등과의 협약 체결을 추진, 각종 팸투어 및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가 확정되었으며, 향후 '농악' 콘텐츠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 전통 농경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참여의 장을 준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영양관리·아토피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완주군이 영양관리사업,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관왕 쾌거를 달성했다.

1일 군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6년도 영양관리사업과 아토피·천식에 방관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선 영양관리사업은 전국 2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국민영양관리실행계획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그동안 대국민 홍보, 환경조성,

생애주기 영양관리, 영양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인정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입산부 및 영유아, 노인대상 영양 사업이 다양하게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사업의 구성이 우수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에서는 취약계층 알레르기 질환자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자를 관리해 건강수준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원주=이종복 기자

**금산면 지역보장협, 저소득 취약계층 LED전등 교체 실시**

김제시 금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ED전등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밝은 빛을 선사하고 있다.

금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민간 협력기구로 복지에 관심이 많은 이장, 부녀회장, 복지기동대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면단위의 주민 네트워크 조직으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직접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 모

금한 3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내 저소득취약계층 40가구에 대하여 LED전등, 노후 차단기, 불완전선 등을 교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산면 복지기동대의 재능기부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LED교체 사업은 지난 2월 정기회의를 통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관내 저소득취약계층 중 LED전등 교체가 필요한 40가구를 선발 그중 1차 10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40가구에 대한 LED전등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향 신부(Didier l'Ser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